

교육참여 소감사례 1)

“ 나의 가슴속 이야기 ”

어느 쌀쌀한 겨울 서울시청에서 공무원분께서 교육자로 내점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공무원 이미지와 차이가 있는 모습이 오재효 주무관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점포에서 교육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신 기색 없이 방문교육에 열성을 갖고 근무하시는 모습에 늦게 남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6년 넘게 축산 근무를 하면서 자체 법규를 통해서 위생,준법을 중점으로 몸에 익힌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생소한 내용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위법 사례 등 각종 사례를 들으며, 제 근무지에서의 작업환경과 위반사례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교육자로서 교육을 받으며 속으로 아!!하고 내 마음속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같이 교육받은 우리 여사님(주부사원) 분들도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공무원분에게서 듣는 교육내용과 자체 준법과의 위생,준법 접근 방식을 차이를 조금씩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근무하는 여사님들을 보면 서로 서로 업무 공유하고 새로 타 팀에서 신입 주부사원이 입사하면 교육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교육자에서 교육자로 업무 공유를 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더 가슴속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신뢰 받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서울시 관계자 분들과 마이크 없이도 열성적인 강의를 해주신 교육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참여 소감사례 2)

“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을 키웠습니다 ”

흔히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일부 악덕 상인들의 잘못된 상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면서 돈육을 팔고 있는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에서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시큰둥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교육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낀 말씀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자!"였습니다. 공기가 흔해서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듯,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어찌 보면 공기의 존재처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매출에 신경을 쓰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상대하면서 저의 이러한 당연함은 많이 무뎠습니다.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잊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은 나태해진 저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준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먹는 일은 조금은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의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은 고객님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일에서 위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매출이나 서비스는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교육 이후 저는 항상 원산지표기와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일임과 동시에 고객님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신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백화점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며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수고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참여 소감사례 3)

“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매하겠습니다 ”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의식주'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통해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 및 정신적인 성장과 성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니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막연한 인식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번 서울시 식품 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소비자에게 '먹거리'를 전달하는 나 자신의 역할을 반성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먹거리'를 선정하고 판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식생활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상의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성장과 생활양식의 변화, 외식산업의 발달 및 식생활의 다양화에 따른 식품의 대량 생산 등으로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나와 같이 소비자에게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판매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인식 변화와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판매자의 인식 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판매자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생산한다든가, 지역에서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들이 이러한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특히, 2009년 6월 22일부로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 제도는 판매자의 인식변화 다시말해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가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이력을 정리하여 소비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쇠고기 이력제를 실시함으로써 판매자는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쇠고기가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진 소비자의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고 바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조회를 통하여 구매한 쇠고기의 사육, 도축장 등의 유통과정을 정확하게 알려드려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였다. '쇠고기이력제'와 같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세련된 포장과 친절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잠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구입하게 하려면 '내가 소비자라면... 어떨까?'하는 마음으로 먹거리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올바른 경로로 생산된 제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하게 성장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도 알게 되었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아니 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작업을 하고 판매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